

제주도 연구의 필요성 -민속학적 측면에서-

金 榮 敦

모든 면에서 제주도의 位相과 값어치는 急變, 急上昇中이다. 제주섬의 땅과 社會·經濟·文化 등이 재빨리 달라져 가는가 하면, 사람들의 意識構造와 社會樣相도 1년이 가면 벌써 새세상이다.

제주도 연구의 필요성은 우선 모든 면에서 激變途上에 이 섬이 놓였기 때문이다. 들쭉는 어느 곳과도 유다른 제주도다운 個性이다. ‘꽃’이라는 말은 있지 마는 ‘꽃’이란 꽃은 없다. ‘동백꽃’, ‘국화꽃’, ‘유채꽃’ 등이 있을 뿐이다. 바로 이 ‘동백꽃’, ‘국화꽃’, ‘유채꽃’ 등이 民族文化요, 地域文化다. 韓民族의 韓文化 안에서도 A지역에는 A꽃의 문화가 피고 B지역에는 B꽃이라는 문화가 피지마는, 제주도의 꽃은 그 색채가 유달리 짙고 향기롭다.

‘제주도 문화’라는 꽃의 색채가 썩 짙고 그 향기 훈훈하기 때문에,

셋째로는 제주도의 民間傳承이 세계적으로 特異性을 띠었다. 따라서 이 섬은 民俗學 연구의 寶庫다. 이 점은 특히 강조할 만한 일이다. 여기서 굳이 예들 필요도, 그 겨를도 없거니와, 海女만 해도 그 始源은 제주도인 듯한 뿐더러, 이 地球上 海女の 4분의 3이상이 이섬에 密集되었는가 하면, 그 技倆 또한 신비롭다.

제주도 연구의 필요성을 말함에 있어 넷째로 지적해야 할 바는 근래 활발히 논의되는 바 韓國의 民族性 내지 民族主體性 定立과 직결된다는 점이다. 民族性이나 그 主體性을 定立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역 단위의 住民意識이 충분히 論議, 究明되고 그 각각의 總和와 共通因子 색출작업이 先行되어야 하겠기 때문이다.

다섯째는 국내 어디든 비슷하겠지마는 특히 제주도 연구는 제주도의 遠視的, 恒久的 開發을 이룩함에 있어 마땅히 先行되어야 할 礎石的, 召命的 課題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. (제주대 국문과 교수)